

정책논단

#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이 제춧말 진흥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문 순 덕

## 1. 머리말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특히 영어)의 영향으로 한국어<sup>1)</sup>의 자리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정부에서는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한국어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자국의 언어 보전 정책 추진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일부 국가는 자국의 언어를 제외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언어 전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국외에 한국어 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문화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한국어 교사 양성과 파견, 교재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국외에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 설치 확대에 반영되어 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육을 통해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을 통해 한글과 한국문화의 가치 확산

1) 한국어는 대한민국 국민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주로 대외적(국외)인 용도로 쓰인다. 국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인정되어 사용하는 언어로 대내적(국내)인 용도로 쓰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가 곧 한국어의 뜻으로 쓰인다.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데 쓰이는 문자를 가리킨다.

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한국어 관련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의 국외 보급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한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위상 강화를 위한 언어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즉 국가 차원에서 한국어의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국내에서는 자국의 언어 진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어의 보전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긍정적인 해답이 결국은 지역어와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지역어의 발전과 확장이 문화융성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라는 관점에서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하여 문화가 발전하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문화융성은 문화예술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화를 매개로 하는 콘텐츠산업은 물론 지역문화 진흥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 진흥에는 지역어 진흥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발전 척도를 경제성장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지역어의 가치 확산 정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춧말<sup>2)</sup>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어(한국어)는 없고 제춧말만 중요하고 살아남아야 할 대상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 중에 제춧말의 진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제주지역에서는 제춧말, 제주방언, 제주지역어, 제주어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책적인 용어로는 '제주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민족은 별개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족과 언어를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국명·민족명+어'라고 할 때는 주로 국가나 민족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어가 있고, 각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 언어인 지역 방언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부르는 명칭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지역명+방언'으로 쓰인다(서울방언, 경기도방언, 충청도방언, 경상도방언 등). 그러므로 한국어의 범주에 드는 제주방언이 학술적인 용어에 해당된다. 다만 제주 사람들은 지역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제주어'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제주방언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편이다. 그러나 언어명은 문법체계 등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는 '제주방언, 제춧말' 정도가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주 말'이라 하면 제주지역에서 사용되는 여러 말이 가능하대(경상도말, 전라도말, 서울말 등).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주도+말'을 합성어로 처리하여 '제춧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 동향

### 1) 정부의 한국어 정책

정부에서는 2014년 한국어의 진흥을 위해 ‘K-Culture로 신한류 창출’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제문화교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한글’ 브랜드 정립 및 홍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혼, ‘한글’의 가치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및 보급”을 추진 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2014년 10월) 및 한글문화주간 확대 운영
- 한글의 산업적 발전 기반 마련(패션, 무용, 로봇 등 다양한 한글상품 공모)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안녕 우리말”) 본격 추진
- ‘한국수화법령’ 제정 및 청각장애인 언어불편해소 사업 추진

다음은 ‘한글’을 포함한 신한류 창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외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에 필요한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과제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제문화교류 및 한류 확산 거점으로 해외 인프라 확충
  - 세종학당 단계적 확대(120→130개소/해외대학,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협업)
- 문화원과 세종학당의 운영여건 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
  - 문화원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강화, 문화원 운영을 성과중심 체제로 개편, 현지인력 임금수준 개선, 국내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8개소)
  - 세종학당 교원 파견 확대(38명), 우수학당 시설개선 지원(10개소),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해외진출 기업과 협력 등 교육환경 지속 개선
- 국제문화교류 전담조직 지정을 통해 분산 수행 중인 지원 기능의 대내외 창구 일원화 및 종합적 지원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세종학당 설치 및 운영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 한국어의 위상 변화

최근 한국어의 위상 강화를 위해 언어 정보 향상에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국립국어원(온라인소식지 「쉽표, 마침표」, 2014. 05. 20. 참조)은 ‘에스놀로그’<sup>3)</sup>에 한국어의 사용자 수 순위 조정을 요청했는데, 이는 2010년 자료에 따라 세계 18위에서 2014년 13위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표 1〉 참조).

한국어 사용자 수 상향 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립국어원에서는 ‘에스놀로그’에서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 사용자 수와 관련된 정보가 수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2013년 11월에 ‘에스놀로그’ 편집진에 정보 수정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2014년 4월 30일에 공개된 개정판에는 우리나라가 요청한 한국어 사용자 수가 반영되어 순위가 조정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을 알리고, 한국어 사용자들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에스놀로그’ 2014년 개정판을 보면,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 수는 6,640만 명에서 7,7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대폭 상향 조정된 언어는 한국어와 터키어 둘 뿐이며, 다섯 계단 이상 순위가 상승한 언어도 한국어와 터키어 둘만 나타나서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은 국가 차원의 결실로 볼 수 있다.

〈표 1〉 세계 언어 순위 5천만 명 이상 사용 언어

개정 전				개정 후(2014. 04. 30.)			
순위	언어	사용 국가수	사용자 수 백만명	순위	언어	사용 국가수	사용자 수 백만명
1	중 국 어	33	1,197	1	중 국 어	33	1,197
2	스 페 인 어	31	406	2	스 페 인 어	31	414
3	영 어	101	335	3	영 어	99	335
4	힌 디 어	4	260	4	힌 디 어	4	260
5	아 랍 어	59	223	5	아 랍 어	60	237
6	포르투갈어	11	202	6	포르투갈어	12	203
7	벵 글 어	4	193	7	벵 글 어	4	193
8	러 시 아 어	16	162	8	러 시 아 어	16	167
9	일 본 어	3	122	9	일 본 어	3	122
10	자 바 어	3	84.3	10	자 바 어	3	84.3

3) 에스놀로그(Ethnologue)는 각종 언어 관련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이다. 주로 2005년판, 2009년판에는 현재 사용 중인 언어 수가 나와 있다. 이 사이트(<http://www.ethnologue.com>)에서는 세계 언어별 사용자 수 순위를 집계하여 발표한다. 2010년 기준 세계의 언어 정보가 2014년 개정판에 반영되었고, 2009년 판에는 한국어가 18위로 집계되었는데, 이번에 13위로 상향 조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2014. 04. 30.)			
순위	언어	사용 국가수	사용자 수 백만명	순위	언어	사용 국가수	사용자 수 백만명
11	독 일 어	18	83.8	11	란 다 어	6	82.6
12	란 다 어	7	82.7	12	독 일 어	18	78.2
13	텔 루 구 어	2	74.0	13	한 국 어	5	77.2
14	마 라 티 어	1	71.8	14	프 랑 스 어	51	75.0
15	타 일 어	6	68.8	15	텔 루 구 어	2	74.0
16	프 랑 스 어	51	68.5	16	마 라 티 어	1	71.8
17	베 트 남 어	3	67.8	17	터 키 어	8	70.8
18	한 국 어	6	66.4	18	타 일 어	6	68.8

출처 : 국립국어원 온라인소식지 「쉽표, 마침표」, 2014. 05. 20.

〈표 2〉에서 보듯이 ‘국가통계포털’(통계청에서 운영)에 구축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에스놀로그’에 정보 수정 요청을 한 것이다. 한국어 사용자 수는 인구통계에 따른 것으로 개정 전 자료는 1986년 통계자료이므로 2010년 통계를 적용해 주도 록 한 것이다. 개정 전에는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 수가 6,640만 명인데 개정 후에는 7,720만 명으로 조정되었다.

〈표 2〉 에스놀로그의 한국어 관련 통계 개정 내용

개정 대상	개정 전	개정 결과
남한 내 한국어 사용자 수	4,200만 명	4,840만 명
북한 내 한국어 사용자 수	2,000만 명	2,330만 명
중국 내 한국어 사용자 수	192만 명	271만 명
일본 내 한국어 사용자 수	67만 명	90만 5천 명
러시아 내 한국어 사용자 수	4만 2,400명	4만 2,400명
독립 국가 연합 내 한국어 사용자 수	-	전 세계 사용자 수에 일부 포함
타이 내 한국어 사용자 수	항목 있으나 사용자 수 정보 없음	삭제
미국 내 한국어 사용자 수	-	전 세계 사용자 수에 일부 포함
기타 국가 한국어 사용자 수	-	전 세계 사용자 수에 일부 포함
한국어 사용자 거주 주요 국가	6개국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타이)	5개국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 수	6,640만 명	7,720만 명
한국어 사용자 순위	세계 18위	세계 13위

출처 : 국립국어원 온라인소식지 「쉽표, 마침표」, 2014. 05. 20.

### 3.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 주요 내용

정부에서는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사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어 검정 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1)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 제도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검정시험제도와 내국인을 위한 국어능력 평가 시험제도가 있다. 특히 외국인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는 응시 자격이 조금씩 다르다.

#####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이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자격시험으로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실시된다. 이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이다. 특히 외국 국적자가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TOPIK 6급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초급은 1, 2등급이 해당되고, 중급은 3, 4등급에 해당되며, 고급은 5, 6등급 수준에 해당된다.

##### ② 세계한국말인증시험

2000년에 위원회를 발족한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은 2001년부터 한글학회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주, 유럽, 동남아 등 40여 곳에서 시험을 실시해 왔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시험이다.

##### ③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K)

이 시험제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일환으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사회 및 산업 안전에 관한 이해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다만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에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④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 : Korean Language Ability Test)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한국 대학(원) 진학 희망자,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 검정시험제도 이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내국인 대상 시험제도가 있다.

##### ①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 Test Of Korean Language)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은 2009년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공인으로 인정한 자격시험이다.

공인 받은 자격의 종목 및 등급으로 국어능력 1급, 2급, 3급, 4급, 5급(국어능력인 증시험) 등으로 나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및 일반인이 응시할 수 있다.

② KBS 한국어능력시험(Korean Language Test)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거소증(거주증 또는 영주권) 중 한 가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도 누구나 KBS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별도 '장애인 응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표 3〉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 유형

시험명	시행처	비고(응시자격)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
세계한국말 인증 시험(KLPT)	한글학회	외국인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	한국어능력평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K)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구직자 대상)
한국어교원자격증	국립국어원	내외국인
KBS한국어능력시험	KBS한국어진흥원	내국인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한국언어문화연구원	내국인

2) 세종학당 지정 현황과 한국어 교육

20세기 후반에 세계인들은 인류의 다양한 문화의 소멸을 예견하면서 그 핵심에 놓인 언어의 소멸이 부각되었고, 언어가 소멸되면 인류의 문화자원도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자신들의 모국어는 물론 다양한 언어 보전과 진흥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다양성과 다언어주의(multi lingualism)를 증진시키고 모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모어의 날을 지정한 것이다. 유네스코에서는 2000년부터 2월 21일을 '세계 모어의 날'<sup>4)</sup>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4) 이는 방글라데시 언어수호의 날에 기원한다. 동파키스탄은 1971년 모국어인 '벵골어를 지키는 나라'라는 의미의 국명인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2월 2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였으며, 이 날을 기념하여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2월 21일을 '모어의 날'로 정하여, 언어의 보전에 관심 갖기를 유도하고 있다.

언어 보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정부는 한국어의 보전과 사용 확산을 위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는 대학과 사설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거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국외에서는 세종학당 지정과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국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종학당 유형으로는 일반 세종학당과 문화원 세종학당이 있다. 일반 세종학당은 세종학당재단(2012년 12월 설립)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 현지 기관에서 세종학당 운영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문화원 세종학당은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가리킨다.

세종학당 지정 현황을 보면 2007년 3개국 13개소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4개국 14개소, 2009년에는 6개국 17개소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세종학당 지정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2014년 2월 기준) 세종학당은 총 52개국 103개 지역 120개소가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세종학당(국내 연계 기관, 46개국 93개소), 문화원 세종학당(24개국 27개소)이 있다.

참고로 한국문화원 수는 2014년 27개소, 2015년 130개소, 2017년 40개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학당 수 역시 2013년 120개소, 2015년 130개소, 2017년 180개소로 확대 예정이다.

〈표 4〉 대륙별 세종학당 개소 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10월)	2014년
아 시 아	6개국 16개소	17개국 40개소	19개국 56개소	21개국 *타이완 제외 72개소	24개국 79개소
유 럽	4개국 4개소	7개국 11개소	10개국 16개소	15개국 24개소	13개국 20개소
아 메 리 카	2개국 2개소	3개국 5개소	8개국 12개소	8개국 14개소	8개국 14개소
아 프 리 카	1개국 1개소	3개국 3개소	4개국 4개소	5개국 5개소	5개국 5개소
오세아니아	-	1개국 1개소	2개국 2개소	2개국 2개소	2개국 2개소
계	13개국 23개소	31개국 60개소	43개국 90개소	51개국 117개소	52개국 103지역 120개소

자료 :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http://www.sejonghacdang.org>)





〈그림 1〉 세종학당 분포 지도(2013년 기준)

다음 〈표 5〉를 보면, 국외에 개설된 한국어 교육 기관 유형을 알 수 있다. 독립형은 세종학당을 운영하려는 현지(국외) 기관이 세종학당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재단의 지원금을 교부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연계형은 국내기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문화원 등)이 현지(국외)기관과 세종학당 운영 관련 업무를 협약한 후 세종학당재단에 신청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표 5〉 세종학당 운영 유형

유형 구분	세종학당 운영 기관 유형	개소수
독립형	현지 대학 독립 운영	31
	현지 비영리단체 독립 운영	9
재외공관 연계형	재외공관 독립 운영	2
	재외공관-현지기관 연계 운영	11
국내기관 연계형	현지 대학-국내 대학 연계 운영	23
	현지 대학-국내 비영리단체 연계 운영	2
	현지 비영리단체-국내 대학 연계 운영	3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계형	한국산업인력공단-현지 대학 연계	6
	한국산업인력공단-비영리단체 연계	3
총 계		90

자료 :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http://www.sejonghagdang.org>), 2013년 10월 기준

세종학당 운영 이외에도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표 6>과 같다. 이는 2013년 현재 한국어를 제2외국어 정규 과목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이다.

<표 6> 외국어로서 한국어 과목 포함 국가

지역	국 가	국가수
아 시 아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타이	9
아 프 리 카	케냐, 카메룬	2
아 메 리 카	미국, 캐나다,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5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
유 럽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6
	총 계	23

출처 :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http://www.sejonghakhadang.org>)

앞에서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하여 국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성격은 좀 다르지만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들(특히 결혼이민자)을 위해 한국 적응에 필요한 기초 언어 연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대비하여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기준’ 중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외공관별 한국어 교육기관을 지정하였다.

한국어 교육기관으로는 7개 기관을 지정하고(재외공관 지정요청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총 52개국 103개 지역 120개소를 일괄 지정하였다(<표 7> 참조).

<표 7> 재외공관 지정요청 한국교육원

연번	관할공관	교육기관명
1	주러시아대사관	로스토프나도누 한국교육원
2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3	”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
4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5	주파라과이대사관	파라과이 한국교육원
6	주태국대사관	태국 한국교육원
7	주호치민총영사관	호치민 한국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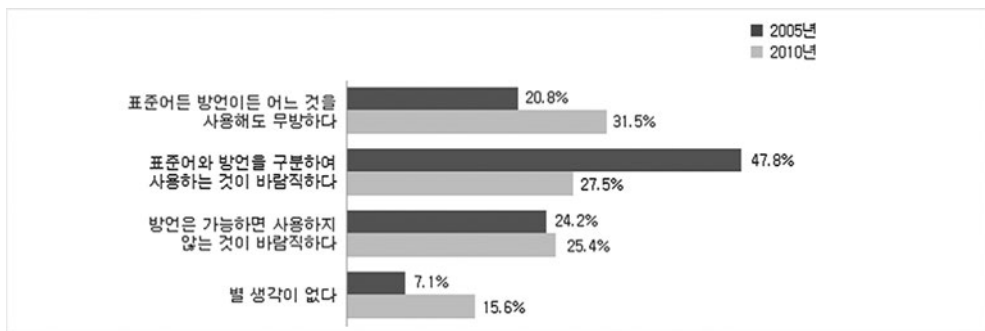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행정과, 「보도자료」(2014. 03. 05.)

### 3) 지역어의 중요성 인식 확산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자국어 사용 인구 확산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만 치중하고 국내에서 한국어의 올바른 사용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어의 상용화 및 사용 기반 조성을 게을리 한다면 결국 한국문화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국어인 표준어와 지역어 사용 이유, 지역어 보존에 대한 의견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어와 지역문화 진흥의 실마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어인 국어를 사용하면서 지역어(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조사 연구가 있다. 국립국어원(2011)에서 실시한 『201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에서는 표준어와 방언<sup>5)</sup>에 대한 국민들의 언어의식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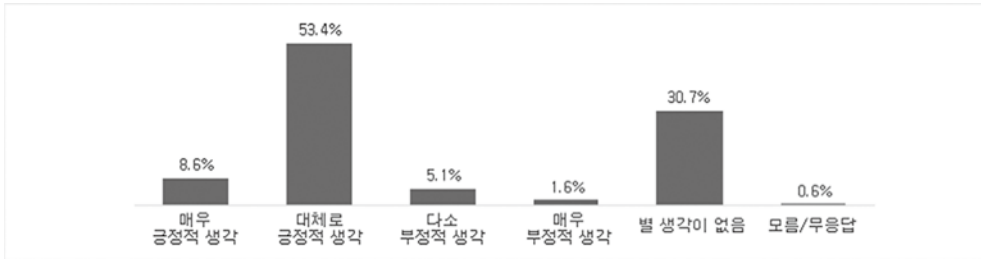
이 조사는 언어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 연구 결과 중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그림 2 ~ 그림 4〉 참조), 먼저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는 2005년 27.5%에서 5년 후인 2010년에 대폭 상승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표준어든 방언이든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31.5%이고,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5.4%로 나타났다. 이 응답 결과를 보면 5년 사이에 방언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표준어와 방언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5) 여기서는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자료를 참조하여서, 표준어와 방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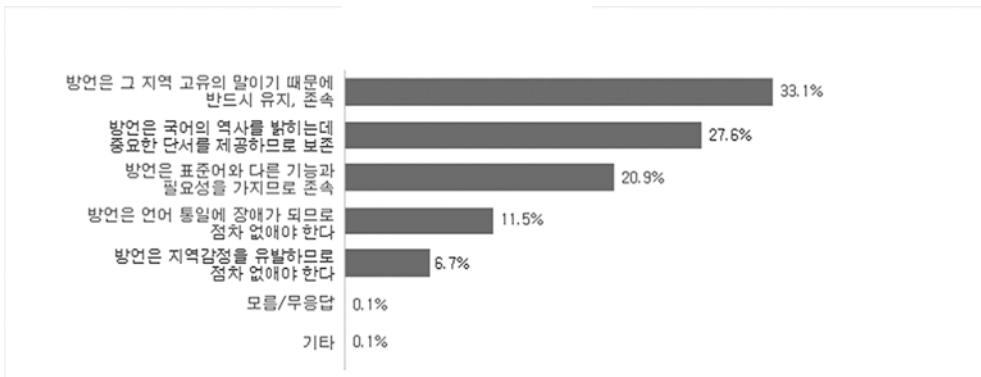
〈그림 3〉은 각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話者)들이 방언 사용에 어떤 입장인지 잘 보여준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2%(긍정적인 생각)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언사용이 나쁘다는 응답은 6.7%(부정적 생각)로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응답 결과를 보면 표준어에 잠식당하고 있는 방언의 생명력이 회복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그림 4〉는 방언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방언은 그 지역의 고유한 말이고, 표준어와 다르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6.6% 정도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준어 사용 환경에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지역의 방언은 그 지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표준어)를 세계에 전파하는 시도만큼 국내에서는 지역의 언어를 부흥하게 하는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림 4〉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 4. 제춧말 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교육기관 운영,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사 양성 및 지원 등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한국어의 진흥을 위해 국가는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어의 진흥 정책을 참조하여 제춧말 진흥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제춧말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

제춧말이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사회문화기구)에서 2010년 12월 ‘소멸위기의 언어’(4단계)로 분류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제주사회에서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춧말 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감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설립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sup>6)</sup> 보전 및 관리 방안과 관련된 연구와 활용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제주어 표기법 제정,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제주어 대중 교재 발간’ 등 제춧말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제주어말하기 대회’ 등 제춧말의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제춧말 관련 기사, 캠페인, 퀴즈’ 등을 통해 제춧말 사용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제춧말을 활용하여 창작 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춧말 진흥을 위한 인적 인프라가 일정 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제춧말의 사용 범위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하여 좀더 조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제춧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세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규세대가 제춧말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일명 ‘제춧말보급자리’를 만들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제춧말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를 위해 제춧말 교재를 개발·

6) 이 글에서는 ‘제춧말’로 통일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기관이나 연구명에 ‘제주어’가 쓰일 경우 그것을 그대로 실려서 제시하였다.

보급하고, 영구적인 보전을 위해 문자기록화 사업을 병행한다.

제웃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언어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또한 대중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 작가들이 제웃말로 작품을 쓰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둔다. 최근에 ‘뚜럼브라더스, 사우스카니발’과 같은 대중음악인이나 영화 <지슬> 감독은 제웃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제주 사람이어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제웃말을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특정 관광지에서 전적으로 제웃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에서는 가능하면 제웃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제주관광안내 책자를 제웃말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이 있다.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으며, K-POP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제주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제웃말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화제작자나 방송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 2) 법적·제도적 지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역어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우선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고 (2007. 09. 27. 제280호), 이에 따라 ‘제주어 보존 계획 수립, 제주어 실태조사,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 제주어 보급과 교육’ 등을 실천한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주어발전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2008~2012), 2차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되어 있다.

이 조례의 특징으로는 ‘제주어 주간’을 지정함으로써 매년 10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탐라문화제 기간) 제주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 하에 제웃말 진흥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지금과 같이 ‘제주어 주간’ 지정은 좋은 제도이나 탐라문화제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행사 참가자들만 아는 정도이다. 앞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제웃말의 진흥을 위해서는 ‘제주어 주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에 걸맞은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제춧말을 재료로 하여 ‘디자인 공모, 전시, 글짓기, 말하기, 공연’ 등 다양한 예술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제주어 표기법’이 제정되었으나(2013년 12월) 아직도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편이다. 제춧말은 입말이므로 문자로 기록하기 위하여 표기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주어 표기법’을 보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 시민교육, 대중매체 등을 통해 알리고, 강좌를 개설하여 언어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이 있다.

### 3) 제춧말 능력평가 시험제도 도입

이는 한국어 검정시험제도나 자격증 제도를 참고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제춧말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관광업 관련 종사자, 방과후 교육 담당자, 문화예술교육강사, 방송인(아나운서 등), 교사 등 제춧말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복지사, 사회복지사 등 실제로 제춧말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4) 제춧말 교육기관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계에서는 제춧말 사용 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춧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교육기관에서는 제춧말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제춧말의 지속적인 진흥에 지역사회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와 지역어의 진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제춧말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제춧말의 진흥에만 몰입한다면 한국어를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춧말 교육과 동시에 한국어 진흥 교육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제춧말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국내 대학 또는 특정 지역에 제춧말학당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우선 제주도내에서는 제도권에 있는 교육기관을 활용하고, 민간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먼저 제주도 민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에서 운영해 본다. 국외지역도 재외도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한국 문화원이나 세종학당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제춧말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교사 양성이 급선무이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춧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제춧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재와 같이 보급하여야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춧말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제춧말 교사 양성, 제춧말 교육 기관 파견 지원, 제춧말 교재 개발 및 보급, 제춧말 문화지도 제작' 등 제춧말의 상용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춧말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상용화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칭)제춧말 상용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어의 세계화 전략으로 한국어를 세계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로 유입되는 한국어 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책 수립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에도 해당된다.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이주자, 결혼이민자 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제춧말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크게 보면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에 해당된다. 이들을 위한 제춧말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운영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제춧말 특별 교육과정(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언어 장벽에 따른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와 최근 제주로 이주해 오는 이주자, 기존에 이주하여 정착한 외국인들은 제춧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제춧말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관 설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 5) 제주도민의 제춧말 사랑 실천 의식 제고

제주 사람들이 제춧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소멸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제춧말 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로 말하기와 쓰기가 가능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언어장벽이 없다. 반면 제춧말을 비롯한 지역어는 해당 지역사람들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장벽이 있어서 지역어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어에 대한 편견 극복이 앞으로 제주지역 문화 계승과 발전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춧말 진흥 정책의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어떠한 언어 사용 환경에서



도 제주말을 우선시하여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제주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역어의 특징으로 인정하고, 모어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제주말 사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국내는 물론 국외거주 제주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제주말을 모어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제주말 화자들은 자신들이 제주말을 사용하고, 제주말 보존의 주체가 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제주말 사용자수가 줄어들면 소멸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제주말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1), 『2010년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 문순덕(2012), “제주어, 유네스코 절멸위기의 진단 이후 극복 방안”, JDI FOCUS 149호,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2013), “제주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117.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계획」
- 국립국어원 온라인소식지(<http://www.urimal365.kr>), 「쉽표, 마침표」, 2014. 5. 20.
- 세종학당 홈페이지(<http://www.sejonghakdang.org>).
- 위키백과 홈페이지([ko.wikipedia.org](http://ko.wikipedia.org)).